



2면

전북도, 글로벌 비즈니스 투자유치 전략 모색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0년 8월 4일 화요일 (음 6월 14일) 제2592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휴가철 3행3금 동참해 주세요

### 마스크·거리두기 등 3행, 방역수칙 준수 당부

### 관광지 주변 점점 강화

전북도가 여름휴가와 방학을 앞두고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3행(行) 3금(禁)을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나섰다.

지난 5월 집값다리 연휴 이후 이태원 클럽발(發) 집단감염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한 것처럼, 여름 휴가철 이후에도 집단감염이 재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강화된 방역수칙 당부에 나선 것이다. **<관련기사 5면>**

실제 지난달 29일 강원도 홍천에서 비대면(언택트) 휴가지로 다소 안전하게 여겨졌던 야외 캠핑장의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 본격 휴가철을 맞아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도는 반드시 실천해야 할 3가지 수칙 3행(行)과 하지 말아야 할 수칙 3금(禁) 준수를 도민들과 여행객들에게 요청했다.

3행 수칙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휴게소와 음식점 등에는 최소 시간 머무르기 ▲사람 간 거리 2m(최소 1m) 이상 유지하기다.

3금 수칙은 ▲발열, 호흡기 증상 있으면 여행 가지 않기 ▲유흥시설 등

밀폐 밀집 장소와 혼잡한 여행지시간대 피하기 ▲침방울 튀는 행위와 신체 접촉 피하기다.

또한 도는 휴가철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관광지와 주변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도내 관광지 188곳에 대해 마스크 쓰기와 시설 내 거리두기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주말마다 점검하고 있다.

전북도내 유명 해수욕장 8곳에 방역요원 18명을 지정, 체온계와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물놀이객 빈번한 107개 지역에도 방역관리자와 안전요원 204명을 배치했다.

이와 함께 안전표지판 등 안전장비 8종 5,110개를 설치해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관광지 주변 유흥업소와 휴게소, 음식점 등에 대한 사전점검과 방역을 강화하고 야간음주 등 집합 제한 조치로 코로나19 확산을 원천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전북도는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전한 전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휴가철 집단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3행 3금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유희상기자

## 도내 기업 제품 중국시장 현지화 지원

### 전북 중국사무소, 국가표준적합검사 등... 14일까지 모집

전북도 중국사무소가 '코로나19' 어려움 속에 있는 전북 기업의 대(對)중국 수출 지원을 위해 2020년 전북 기업제품 중국 현지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매년 농수산물유통공사(아T 상하이지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상하이지사)과 함께 추진하

는 이번 사업은 도내 기업 제품이 중국 현지 상변(商法)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전성분검토, 중국국가표준적합검사(GB검사), 중국어 라벨 제작 등을 지원한다.

특히 이 사업은 농식품 및 화장품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도내 기업에는 중국 수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전

작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비용은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아T, KTR)에서 우선 지원하고 자부담 부분은 중국사무소 예산으로 지원해 도내 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없다.

전북도 중국사무소는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 분청 기업지

원과 농식품산업과를 통해 14개 시·군에 참여업체 신청 홍보를 요청했다.

또한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도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14일까지며 8월 중 대상업체를 선정해 9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 중국사무소 관계자는 "국내

중국 수출 기업 상당수가 '중국표준'에 부적합해 인허가 획득에 실패하고 다시 인허가를 위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까지 시간이 소요돼 트렌드가 급변하는 화장품의 경우 상품성이 떨어

어져 수출성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중국 수출을 원하는 도내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희상 기자



영국을 대표하는 여행매거진이 전주를 올해와 내년엔 꼭 가봐야 할 여행지로 추천했다. 사진은 위에서 내려다 본 전주 한옥마을의 모습이다.

## 고즈넉한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을~

영국을 대표하는 여행매거진이 전주를 올해와 내년엔 꼭 가봐야 할 여행지로 추천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영국의 여행매거진인 트래블위클리지는 최근 아시아 여행에 관심이 있지만 예약이 어려워지는 여행자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올해와 내년엔 가볼만한 여행지를 소개한 '올해와 내년엔 방문할 아시아 최고의 여행지(Ask the operators: Best places to visit in Asia this year and next)'에서 전주를 꼭 가

봐야 할 여행지로 손꼽았다. 1969년 창간된 트래블위클리지는 4만5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연 평균 약 780만 명이 웹사이트에 방문하는 유명 주간잡지이다. **<관련기사 4면>** 이 여행매거진에서 인사이드아시

### 영국 여행매거진, '꼭 가봐야 할 여행지'로 전주 추천

아투어스의 동남아시아-중국지역 상품매니저인 크리스 그리나는 "요즘 여행객들은 현지인을 만날 수 있고 전통음식을 맛보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발길을 돌린다"고 시작하면서 "전주는 한옥마을로 잘 알려진 도시로, 비빔밥과 김치와 같은 음식을 맛보기 위한 미식 투어라면 실패가 없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한국은 현대적이며 붐비는 서울도 멋지지만, 전주는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을 묵을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라고 설명하며 "명백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에게 적합한 여행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여행객들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여행하는 것 자체가 큰 모험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간 경험한 것과는 색다른 체험지이자 글로벌 여행지로 전주가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시는 포스트코로나시대 관광산업을 이끌고 글로벌여행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콘텐츠와 온라인을 활용한 해외 홍보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여행출판사이자 세계 모든 배낭여행자들의 지침서로 불리는 '몬리플래

닛'을 통해 아시아에서 꼭 가봐야 할 3대 도시에 선정됐으며, CNN, 더가디언, 더트레블러 등 해외 주요 미디어로부터 대표적인 여행지로 언급됐다. 지난 4월에는 이탈리아 리얼리티 쇼인 '페키노 익스프레스'에서 한옥마을 일대의 아름다운 풍경과 한복을 입고 색다른 체험을 즐기는 모습이 방영되기도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의 가치가 세계인을 사로잡는 '전주의 시대'가 오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에는 서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관광거점 도시인 전주가 있다. 전주는 대한민국 문화수도로서 강력한 문화의 힘으로 글로벌 여행시대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기자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http://council.jinan.go.kr

## 군민의 뜻에 귀 기울이는 바른의회!

# 진안군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안군의회  
http://council.jinan.go.kr